

2026 가을 기획전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음V

2026 가을 기획전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음V

전시장소	경기여고 경운박물관(경기여고 100주년기념관 1층)
전시날짜	2026. 9. 17. ~ 2026. 12. 19.
주 최	경운회
주 관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전시총괄	관장 설영자
기획진행	학예연구사 이경희 이해원 박상진 학예연구원 김도은
진 행	배방훈 임연옥 이정희 한종혜 김명희 이계호 이영희 호원숙 김혜진 박유희 손창옥 오현옥 정순은 지미영 김선희 김혜래 민승옥 이경순 이숙명 최은순 이완규 이준령 정경희 지송용 윤은경 안주희 염지현 이동아 이지현
사 진	서현강
도록 및 디자인	페이지
전시시공	영인스페이스
발 행 일	2026년 9월 17일
발 행 인	설영자
발 행 처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06324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29 경기여고 100주년기념관 1층 Tel. 02-3463-1336 Fax. 02-3463-1331 https://kwmuseum.org
I S B N	979-11-974654-8-2(93600) 비매품

2026 가을 기획전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음V

차 례

인사말	06
설영자 경운박물관 관장	
삶의 결, 이어진 시간	08
세월 속에 깃든 미감	28
깊은 뜻, 귀한 나눔	56
경운박물관 전시 연혁	70
2003. 4 ~ 2026. 8	
유물 기증자 명단	76
2022. 4 ~ 2024. 8	

인사말

경운회가 걸어온 뜻깊은 80년의 역사 위에서, 경운박물관이 스무 해를 훌쩍 넘어 성숙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2012년 첫 기증전의 문을 연 이래, 올해로 다섯 번째 기증전을 열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초창기 동문들의 뜨거운 모교 사랑으로 시작되었던 유물 기증의 물결은 이제 담장을 넘어,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으로 자연스레 확대되며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믿고 아껴주신 기증자 여러분의 깊은 신뢰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귀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박물관이 소장하게 된 13,000여 점의 기증 유물은 단순한 옛 물건이 아닙니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마음을 모아주신 80여 분 기증자의 손길에는 선대의 지혜와 문화적 안목을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숭고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3대를 잇는 모교 사랑으로 평생 모은 장신구를 내어주신 고결함, 집안의 대를 이어 지켜온 한글 사랑, 수려한 풍류가 느껴지는 안경집, 그리움으로 남은 어머니의 치맛감과 아이의 따스한 체온이 남아있는 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물에는 가족의 역사와 애뜻한 서사가 숨 쉬고 있습니다.

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기증품들은 경운박물관을 살아 숨 쉬는 문화의 공간으로 만드는 소중한 원동력입니다. 이번 도록은 기증 유물들이 품고 있는 풍부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진실되게 담아내어, 시대를 뛰어넘는 삶의 온도와 가치를 조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소중한 유산을 기꺼이 전해주신 모든 기증자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에 담긴 진솔한 이야기들이 선대의 지혜를 기억하고, 우리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가꾸는 울림으로 오래도록 남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9월
경운박물관장 설 영 자



삶의 결, 이어진 시간

이혜자 32회	10
이남주 45회	14
박경자 50회	15
구복순 52회	18
김영중 52회	21
변순자 52회	24

이혜자 32회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습 V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한글 사랑

나의 시어머니 이혜자(32회, 1925~2016)님은 경기여고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셨으며 22대, 23대 총동창회 경운회장을 지내셨다. 가족들이 모이는 토요일에도 월례회를 다녀오시곤 했다. 또한 이번 경운박물관 기증전에 전시되는 탕건과 흑립을 비롯하여 신사임당 상을 받을 때 입었던 당의 등 집안의 유물 39점을 기증하셨다.



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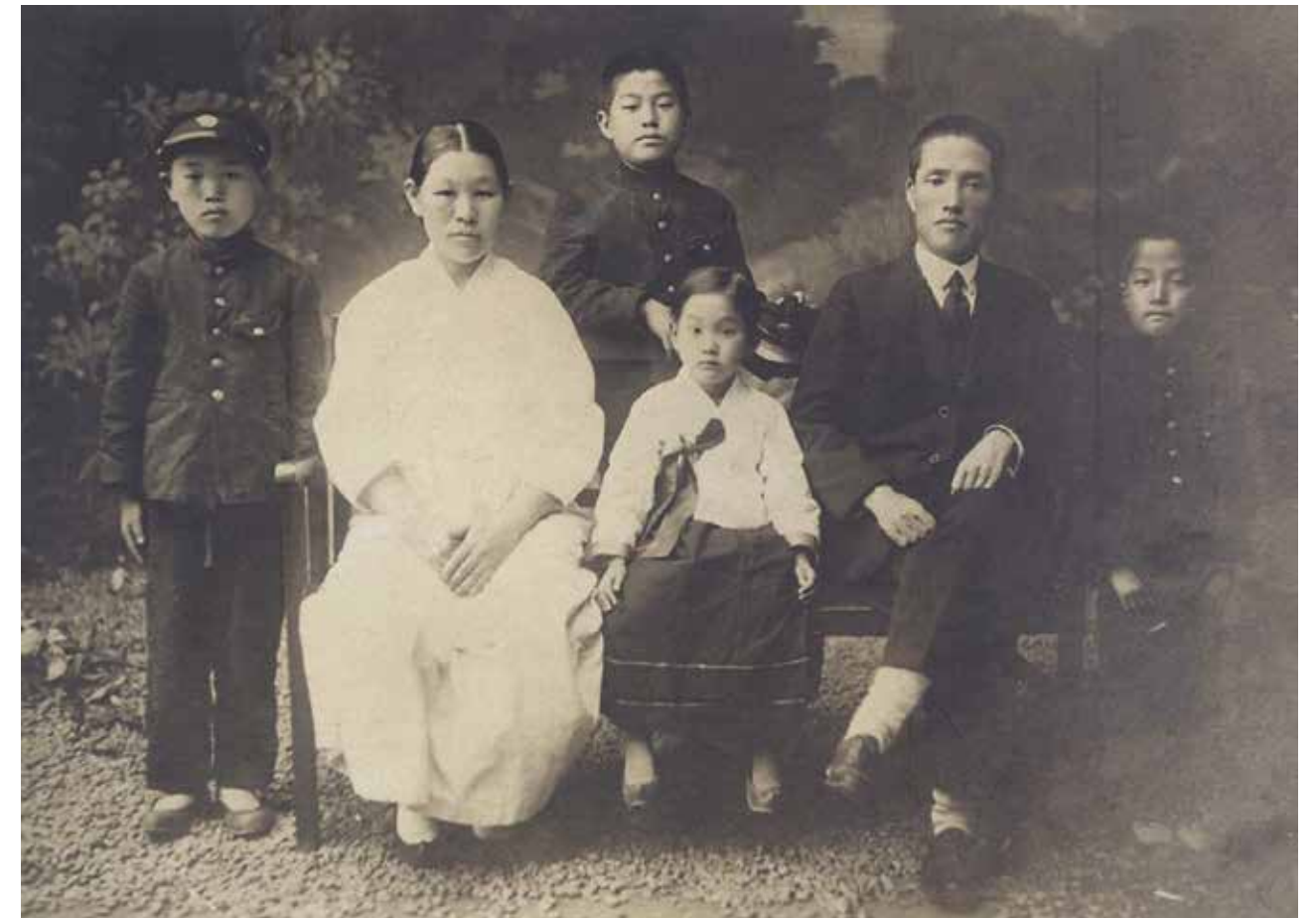
탕건

어머니의 친정아버지 이춘호 박사(1892~1950)와 시아버지 외솔 최현배 선생님(1894~1970)은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함께 재직하였다. 한글에 대한 일제의 압박으로 외솔 선생님이 3년여 옥고를 치를 시기에 두 어른은 아들 최신해(1919~1991)와 만딸 이혜자의 결혼을 옥중에서 정하셨다. 해방 후 서울대학교 2대 총장을 역임한 이춘호 박사는 한국전쟁 때 대학교를 지키다 납북되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로비에 흉상이 모셔져 있다. 외솔 선생님의 흉상은 연세대학교 교정과 문과대학에 있으며 우리 부부와 두

딸이 모두 연세인이 되었으니, 연세는 우리 집안의 내력을 담고 있다.

이춘호 박사가 납북된 후 어머니 한정원 여사는 홀로 칠남매를 키워내고 93세까지 사시어 자녀들이 각 분야에서 훌륭하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 이 중 딸 다섯은 모두 경기여고를 졸업하였다.

나의 시어머니 이혜자님은 전란 중 이화여전 가사과를 졸업하고 결혼하였다. 주부로만 살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신 시아버지 최신해 박사(청량리 뇌병원 설립자이자 초대원장)는 아내를 덕성여대 약학과를 수석 입학하여 수석 졸업을 하기까지 외조하셨다. 부전자전이랄까 연세의대 졸업 후 육아와 직장 일이 힘들어서 경력을 포기하려던 나에게 남편은 힘든 공부를 이제 다 마쳤는데 그만두기 아까우니 의사의 길을 계속 가라고 독려하여 의사로서 일하게 되었다. 청량리정신병원 원장이었던 시아주버님 최문식님도 아내 윤난지(60회) 동문을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교수가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였다.



최현배님 부부와 3남 1녀

우리 말과 글을 지켜내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의 체계를 잡느라고 고군분투했던 외솔 선생은 우리 글자가 얼마나 과학적인가를 이미 꿰뚫어 보셨다. 한글로 과학과 문화의 융성을 이루고 나아가서 나라의 힘을 기르게 될 것이라는 선생님의 혜안 앞에 절로 숙연해짐을 느끼게 되었다. 외솔 선생의 업적은 너무나도 크고 방대하다. 주시경 선생의 제자로서 우리말본을 저술하여 우리 말의 문법 체계를 집대성하였다. 또한 조선어학회(지금의 한글학회) 핵심간부로서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 제정을 주도했으며 표준어 사전 및 외래어 표기법 제정 등으로 현대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생활의 규범과 기준을 마련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리고 우리말 연구와 보급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하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흥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광복 후 문교부 초대 편수국장으로서 우리말 교과서를 편찬하여 문맹 퇴치에 앞장섰다. 특히 한글 가로쓰기와 한글 전용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글을 읽고 쓰는 대중적 문자 환경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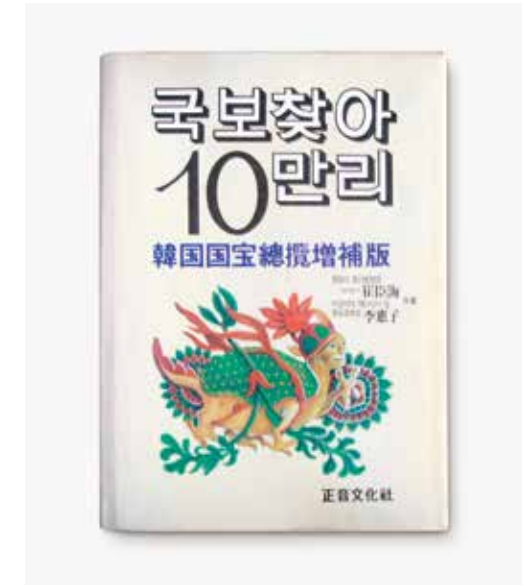
이 외에도 한글날 제정을 주장하고 한글날 노래를 작사하여 한글의 우수성과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불러 일으켰다. 1945년 8월 18일은 외솔 선생의 사형 집행일이었지만 8월 15일 조국의 광복으로 석방되어 나라 사랑, 국어 사랑의 삶을 한 치의 사심 없이 실천하셨다. 1970년 3월 23일 외솔의 장례식은 대한민국 사회장이었으며 현재 동국대학에서 남산으로 가는 언덕 초입에 높다란 외솔 최현배 기념비가 서 있다. 외솔회는 매년 3월 23일에 그 탑 앞에서 꽃 바치기 행사로 외솔 정신을 기념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을 숭배하신 외솔께서는 아들들의 이름을 영해, 순해, 신해, 철해로 지으셨고 둘째 순해는 어려서 사망하고 3남 1녀가 생존하였다. 한글 보급과 문법 체계를 정리한 외솔 선생의 책들은 맏아들 최영해님이 정음사를 세워서 출간했다. 그 후 막내아들 최철해님이 정음사와 정음문화사를 운영하며 외솔 정신을 계승했다.

나는 1978년 5월 2일 최신해 박사와 이해자님의 차남 최홍식과 결혼했다. 그해 4월 29일 토요일이 길일이었는지 정말 많은 이들이 그날 결혼식을 올렸다. 시아버님께서 남들이 쉬는 주말도 피하고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도 피해서 화요일 점심시간에 결혼식을 하라고 하셨던 기억이 새롭다. 시부모님은 일찍부터 낚시를 즐기어 두 분이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국보를 찾아다니셨다. 국보의 명칭, 배경 내용, 위치 및 그곳에 가는 교통편 등을 일일이 조사해서 기록하고 사진을 실어서 <국보 찾아 10만리(1985년 6월 8일 발간)> 책을 내셨다. 이후 많이 발간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책들의 효시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나의 남편 최홍식은 후두 및 음성 전문의로서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이비인후과 주치의였다. 할아버지 외솔이 1946년에 세우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직을 12년째 맡고 있으며 아래아를 비롯한 한글의 조음 과정이 후두의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음을 규명하기 위하여 MRI 등 의학 장비를 활용



물가에 앉으신 최신해 박사, 이해자님



하여 연구하고 있다. 나는 처음에는 의사가 무슨 한글 운동을 하나 했으나 할아버지의 깊은 나라 사랑, 한글 사랑을 깨달으며 남편이 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며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헌신하는가를 이해하게 되었다. 할아버지의 혜안에서 시작되어 시부모님의 삶으로 그리고 남편의 헌신으로 이어지는 한글 사랑의 뿌리는 참으로 깊고 견고하다. 그 위대한 유산이 우리 집안에 흐르고 있음을 깨달은 지금 지나온 세월에 대한 감사와 함께 묵직한 자부심이 가슴 깊이 밀려온다.

글/ 임인경 60회, 둘째며느리, 37대 경운회장

이남주 45회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습 V

제례에 쓰던 민족두리

기증자 이남주의 친가인 맹현가(孟峴家)에서 사용한 민족두리이다.

이남주의 증조부 완순군(完順君) 이재완(李載完, 1855~1922)은 고종황제의 사촌이다. 조부 이달용(李達鎔, 1883~1948)은 일본에서 거행된 영친왕의 결혼식(1920년)에 이왕가를 대표해서 참석했고 결혼 10주년 기념행사에는 이남주의 부친 이해상(李海祥, 1913~1985)이 이달용을 수행해서 참석했다. 이남주는 2016년부터 완순군의 조복과 관복, 어머니 신계완의 혼례복 일습 등 140건 196점의 유물을 경운박물관에 기증했다.

이 족두리는 검은색 공단으로 겉을 하고 안은 솜을 채워 만든 것으로 전형적인 전통 방식의 솜을 넣은 민족두리이다. 민족두리는 제례 때 여성들이 천담복(옥색 치마저고리)과 함께 썼던 장식이 없는 족두리이다. 앞 중심 중앙의 조각을 중심으로 좌우 같은 모양 3쌍을 연결해 원통을 만든 다음 정수리 중앙에 정심원을 부착하였다. 그 다음 안쪽에 솜을 가득 채워 족두리 겉면을 반듯하게 만들고 아래 가장자리의 시접을 정리하면서 흰색 실로 솜을 고정하였다. 솜을 넣은 안쪽은 솜을 고정하기 위해 홍색 실로 여러 번 꿰맨 흔적이 남아 있으며 중심이 약간 비어 있다.



민족두리(겉)



민족두리(안)

박경자 50회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습 V

어머니의 손길, 그리움으로 남은 치맛감

누구에게나 그렇듯, ‘어머니’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울컥 눈시울을 적시게 만듭니다.



어린 시절의 가족사진



경기여중 입학하고 어머니와 함께

나의 어머니, 故 임영희(1922~2016) 여사.

어머니는 제게 귀한 DNA를 물려주신 어머니이자, 평생의 삶을 이끌어 주신 정신적 스승이었습니다. 평안남도 진남포가 고향인 어머니는 남하(南下)와 이산의 아픔 속에서도, 7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록은 한 주부의 소소한 일상이자 굴곡진 현대사의 생생한 기록이었으며, 삶의 무게를 다독이던 스스로의 치유와 위로의 족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2016년 세상을 떠나시기 전, 손수 쓰신 56권의 광대한 일기를 국가기록원에 기증하시며 “일기는 반성이다. 기록은 역사다. 기증은 아름답다.”라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지난 2026년 6월 23일은 제게 잊을 수 없는 가슴 벅찬 날이었습니다. 대구섬유박물관(관장 박미연) 기획 전시실에서 특별전 <손끝으로 이어진 시간: 엄마의 기록, 딸의 기억>이 막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개막식



국가기록원에 기증한 일기장

날, 저는 어머니가 생전에 직접 지어주신 옷을 입고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섰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듯한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가신 지 10년 되는 해에 전시를 열 수 있어서 딸로서 어머니께 할 도리를 다한 것 같아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어머니의 일기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직접 지으신 의복과 바느질 자료들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옷이 단순한 복식 자료가 아닌, 어머니와 딸이 함께 공유했던 시간과 공간의 매개체로 소개되었기에 제게는 더욱 뜻깊었습니다. 당시 개막식에 참석했던 경기여고 동문 호원숙(60회)님은 다음과 같은 글로 어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을 전해 주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대구섬유박물관 특별전에 전시된 어머니의 일기장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바느질로 이겨낸 임영희 여사
옷을 디자인하고 패턴을 그리며 예술의 욕망을 다스렸던 분
딸들을 최고로 교육시키고자 했던 그 깊은 사랑
세상의 사물을 아끼고 다시 쓰며 살려내던 삶
물질의 부족함을 멋스러움과 유머로 채우던 지혜
하루하루 이어간 일기, 그 정갈한 글씨 앞에 머리 숙여지는 거룩함
단정함과 여성스러움을 간직한 채 끊임없이 노력했던 어머니

멀리 대구까지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 준 경운박물관 식구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사실 어머니는 제가 ‘경기’를 사랑했던 것 이상으로 ‘경기’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경기여중에 입학했을 때 “내 꿈이 다 이루어졌다.”라며 기뻐하셨고, 후일 제가 경운박물관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박물관 식구들이 전시를 찾아 함께 축하해 주는 모습을 보시며,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서도



실크 벨벳 치맛감, 1940년대

누구보다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2015년 가을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기념전 〈한복, 우리가 사랑한〉에 1960~70년대에 아껴 입으시던 벨벳 치마저고리가 전시되었습니다.

2021년 5월 경운박물관에 기증한 유물은 어머니의 젊은 시절 추억이 깃든 귀한 옷감입니다. 1940년대 실크 벨벳 치맛감의 일부로, 우리나라에는 1930년대에 처음

소개된 직물 형태입니다. 오늘날 흔히 접하는 인조 화학섬유 벨벳과 달리 직물사적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벨벳 옷감은 어머니가 혼수로 장만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고리 없이 두 폭 짜리 치마만 있었는데, 당시 치마폭을 좁게 입던 유행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셨던 어머니의 이모님께서 정성껏 만들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남은 이 옷감으로 무얼 만들어 입을까 고민했지만, 벨벳은 워낙 바느질이 힘들어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셨을까요? 지어지지 못한 채 어머니의 손길로 만지작거림만 받던 이 치맛감. 만약 어머니의 솜씨 좋은 바느질 끝에서 한 벌의 옷이 완성되었다면, 나는 또 어머니의 손길과 어떤 인연을 맺고 어떤 추억을 쌓았을까요. 이 벨벳 치맛감은 직물사적 가치가 높아 경운박물관에 기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치맛감을 바라보는 이 순간에도 따스한 어머니의 품이 그리워집니다.

결마다 새겨진 엄마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시간

늘 가슴 한편에 모시고 있는 엄마(구복순, 1945~2025)지만, 정신없이 지내다가 불쑥 엄마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를 마주하고 나면 어느새 엄마의 존재가 희미해진 것 같은 생각에 서운한 느낌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릴없이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그러기에 엄마를 기리고 기억하는 특별하고도 뜻깊은 방법이라는 점에서 엄마가 아끼던 소장품을 2005년에서 2018년까지 박물관 운영위원으로 봉사하셨던 경기 여고 경운박물관에 기증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엄마에 대한 기억을 짧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제 골동품이 품고 있는 세월의 가치와 의미를 한 번쯤 짚어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어린 시절에는 엄마에게 투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오래 찾아볼 수 있는 색상도 모양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동용 가구 하나 없이, 엄마가 수집하신 묵직한 느낌의 고가구와 골동품이 가득한 집 안 풍경이 어린 마음에는 못내 아쉽기도 하였습니다. 입을 비쭉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지금의 나보다도 젊은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새삼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때 느꼈던 쇠와 나무의 감촉, 은은하면서도 어딘지 포근한 냄새와 단단하고 곳곳한 인상은 엄마와 함께 보낸 시간의 기억과 함께 언제까지고 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엄마와 제 삶의 흔적도 이 기증품에 더해졌습니다.

엄마는 평생 소박하고도 검소한 분이었습니다. 평소 당신을 위해 돈을 쓰는 데에는 인색하고도 무심하여 성인이 된 이후로는 딸의 입장에서 괜한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먼저 사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골동품 수집은 유일한 사치이자, 삶의 지난한 고비를 넘기게 해 준 소중한 숨구멍이 아니었나 짐작해 봅니다. 먼지 쌓인 골동품들 속에서 귀한 보물을 찾아내고, 그것을 정성스레 닦아 내어 집 안 한 귀퉁이에 놓아두는 것. 그 작업은 당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독이고, 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엄마의 유일한 돌파구였을 것입니다. 엄마는 두 딸의 예일대 졸업장을 나란히 등잔걸이에 세워 두시기도 하였는데, 당신에게 소중한 것에 소중한 것을 더하여 힘을 받고 계셨던 것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엄마에게 골동품은 단순한 가재도구가 아니라, 말하자면 당신의 심미안을 투영하는 거울이자 세상살이



떡살과 다식판



분청사기



장경호



엄마와 함께

를 버텨내게 한 열정의 분신이었습니다. 이미 집 안에 꽤 오래 놓여 있던 골동품 한 점 한 점을 달뜬 표정으로 예리하게 구석구석 살피며 감탄하시던 엄마의 얼굴이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순간이라는 생각에 그 모습이 깊이 각인되어 지금도 선명합니다. 엄마는 그렇게 함께 살게 된 오래된 물건들을 보살피며 당신의 삶 또한 끈고도 단정하게 단련해 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월이 흘러 엄마의 건강이 쇠약해지고 당신의 뜻을 직접 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저는 ‘내가 아는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청춘이 머물렀던 곳이자 엄마 인생에서 평생의 자부심이요 지지가 되어준 모교, 그곳에서 세월을 간직하고 기억을 이어가는 박물관보다 더 적절한 귀향처는 없으리라 확신했습니다. 이 기증은 엄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삶의 일부, 그 조각들을 공적인 역사의 영역으로 옮기는 과정이었습니다.

다. 집에서 물건들을 내보내던 날, 제 유년의 추억도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아 섭섭함도 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의 시선 속에서 빛나는 엄마의 애장품들을 보니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전시장을 찾은 분들이 그 결을 어루만질 때, 이면에 담긴 엄마의 고단했던 삶과 그를 다독였던 예술에 대한 열정까지 함께 느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엄마, 엄마가 평생을 사랑했던 이 아름다운 떡살과 다식판, 분청사기, 장경호 등 골동품들이 많은 사람의 찬사 속에서 빛나고 있어. 엄마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웠고, 당신의 마지막 선택 또한 그만큼이나 빛난다는 것을 이곳에서 확인합니다.

글/ 이소란 둘째 딸,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중 52회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음 V

정교하게 수놓아진 안경집

우리 어머니 이인희(28회, 1921~2018)께서 작고하신 후 유품을 정리하면서, 평소 가보로 여기며 귀중히 간직하시던 사명기(司命旗)를 비롯한 202건 202점의 유물을 모교인 경운박물관에 기증하였다. 기증품은 할머니가 어머니의 혼수로 마련해주신 각양각색의 옷감으로 철 따라 입을 수 있게 지은 한복 수십점, 아버지의 한복 일체와 여름 이불, 할머니의 속옷 몇 점, 그리고 나의 결혼 당시 우리나라의 최고의 디자이너로 알려졌던 마드모아젤 김경희 여사가 지은 나의 웨딩드레스와 앙드레 김이 지은 화려하게 수놓은 보라색 벨벳 자켓과 바느질 용품 등이다.



왼쪽부터 나, 어머니, 남동생

내가 집에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박물관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우리나라의 섬유사나 복식사의 변천사를 보고,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훨씬 의의가 있고 유물의 가치도 빛낼 수 있겠다는 일념에서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이상 집에서 모시지 못한다는 죄송함과 아쉬움에 죄책감이 들었다.

우리 어머니는 한산(韓山) 이씨(李氏)로 어머니의 고조부 되시는 충간공 이헌직님은 대한제국 시기에 이조, 예조 판서를 지내신 분이다. 그 동생이신 충숙공 이경직님은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를 습격한 일본 낭인들에게 항거하시다가 황후와 함께 장렬히 순국하신 분이시다. 우리 어머니가 외가의 유일한 혈손이셨기에 이제 그 대를 잇는 자손은 나와 나의 동생 둘 뿐이다.



안경집

기증된 유물들 중에서 지난번 〈격동의 시대, 다시 만난 오얏꽃〉 전시 때 사명기가 전시되었고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안경집은 제작 연도와 출처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안에 새겨진 글귀와 문양이 무척 아름답다. 잔잔한 바람과 맑은 향기 등 자연의 고즈넉한 정취를 묘사한 ‘풍세향청(風細香清)’과 당나라 등왕각(滕王閣)의 수려한 풍류와 예술적 경지를 예찬하는 ‘등왕화경(滕王化境)’이 새겨져 있다. 소나무와 새, 괴석, 영지 등이 정교하게 수놓아진 이 유물을 당나라의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소장했던 분의 높은 품격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함이 없겠다.

또 하나의 기증품인 ‘Made in Germany’ 라벨이 붙은 독일산 남색 벨벳은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내가 크면 롱드레스를 만들어 입히겠다고 거금을 들여 구입하여 간직하시던 것이니 적어도 60~70년 전 옷감이다.



벨벳 직물

그동안 모교로부터 받은 큰 사랑에 비해 보답한 것이 없어 늘 빚진 마음이었다. 기증을 통해 모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고 기쁘다.

3대가 동문인 모교에 평생 모은 장신구 기증

나의 친정어머니(김숙렬, 1921~1972)는 평생 외할머니(전수일, 9회)를 모시고 살았다. 외할머니, 어머니로 이어지는 모계 3대가 경기여고 동문인 우리 집은 늘 정갈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부엌에서 사용하는 양념들이 하얀 도자기에 담기어 가지런히 놓여 있던 모습, 그릇들이 얹혀 있던 찬탁 등 전통적이고 아름다운 목가구들이 내가 자라난 생활환경을 이루고 있었다.



조선일보, 1926년 2월 5일
미인예찬 {3} 재학 시대부터 대표적 미인인 전수일 여사

1919년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현 경기여고)를 졸업하신 외할머니 전수일은 아마도 상당한 미인이셨던지, 1926년 2월 5일자 조선일보에 ‘미인예찬 3’의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하였다.

“재학 시대부터 대표적인 미인인 전수일 여사/1919년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전수일 여사는 재학 당시에는 그 학교 대표적 미인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는 상업은행원 김동원(金銅元)씨

의 부인이 되어 벌써 자녀 남매를 슬하에 두고 화락한 가정생활을 하는 터이니, 지난 3일에 방문한 기자를 향하여 ‘나를 미인이라고요. 그것도 다 전에 말이지 이제는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는데...’하고 잠깐 웃음을 띠더니, 다시 말을 계속하여 ‘나는 이제는 제 몸치장도 아무것도 잊어버리고 다만 시부모님을 잘 섬기고 남편을 잘 받들고 자녀를 잘 기르겠다는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참말로 우리 가정의 꽃도 되고 노래도 되는 것은 이 어린아이들이예요’라고 합디다.”

우리 고유의 옛것을 좋아하셨던 어머니께서 언젠가 친히 호랑이발톱노리개를 보여주셨는데 이를 경이롭게 바라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외할머니는 18세에 어머니를 낳으셨다. 어머니의 동생으로 아들을 더 낳으시고 20대에 혼자 되셨다. 당시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셨던 외증조할아버지는 “남매를 맡아 키워 주겠으니 일본에 가서 보육전문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오라”며 외할머니에게 일본 유학을 권하셨다. 일본에서 보육전문대학을 나오신 외할머니는 귀국하여 수송동에 유치원을 설립하셨다. 이 유치원을 외할머니는 40여 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기초를 다져놓으셨다. 아마도 그 당시로서는 대단하셨던 여걸이셨을 것이다.

외할머니는 어머니를 포함하여 남매를 낳으셨는데 외삼촌이 6.25전쟁 때 사망하는 불행을 겪으셨다. 그리하여 어머니가 무남독녀 외딸로 자라나셨고 외할머니를 평생 모시고 사시게 된 것이다. 나는 당연히 외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성장하게 되었다. 외할머니는 전형적인 경기여고 스타일로 지적이고 정확하며 부지런하셨다. 나의 아버지(변우경, 1917~2002, 출판사 수도문화사 운영,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역임)는 서울 제2고등보통학교(현재 경북고등학교) 출신이시다. 아버지는 “나는 경기여고에 치여 살았는데, 너는 경기여고스럽지 않아서 좋다.”라며 웃으며 말씀하시곤 했다. 아마도 장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경기여고 출신인 두 여인 사이에서 쉽지 않으셨음을 의미하신 것이었으리라.

나의 어머니 역시 대단한 미인이셨다. 어머니는 현재 헌법재판소 자리에 경기여고가 있었을 때 학교를 다니셨다. 당시 경기여고 학생들은 털실로 직접 스웨터를 떠서 교복을 만들어 입었다. 어머니께서 학교 근처를 지나가면, 보는 사람마다 “저 예쁜 여학생은 누구냐?” 하면 이미 아는 사람들이 “긴 슈츠 레츠(김숙렬의 일본식 발음)잖아” 하면서 웅성거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제 나도 나이 들게 되면서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내게는 두 분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말이 더없이 감사하고 기쁘지만, 이제 그분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 또한 닮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1968년에 결혼한 나는 신혼 시절인 70년대에 옛 물건이 많은 인사동길을 돌아보는 것을 좋아했다. 물건마다 이야기를 품고 있을 골동품들은 저마다 개성 있는 매력으로 내게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처음에는 목기와 목가구들에 눈길이 갔다. 우리나라 옛것들의 아름다움으로 나의 생활반경을 채워 나갔다. 결혼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던 시어머니(김서경, 1917~2001)는 어디서 누가 쓰던 것인지도 모를 골동품을 집에 들여놓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셨다. 그러다 어느 날 외출했다 집에 들어가는데 시어머니께서 목가구 위에 촛불을 켜 놓으시고 정성껏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시어머니는 골동품과 이야기하시듯 기도로 소통하시면서, 물건들에 품으셨던 부정적인 생각을 내보내시고 공간에 새 기운을 불러내시는 것 같았다.

남편(양규모 KPX 그룹 회장)은 70년대에 부산에서 진양화학을 운영했다. OEM 방식으로 신발을 제작하여 수출하는 당시의 공장에는 20,000명 정도의 직원이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출근 시간에 공장에 들렀다 나오면서 그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남편의 역할의 막중함을 알게 되고 산업현장의 신성함을 느낄 수 있었다.

서울 토박이인 내가 3년 동안 부산에서 지내면서 살았던 때, 해외에 OEM 수출을 하기 위한 신발 샘플들은 생각보다 무척이나 다양하고 수가 많았다. 이를 진열해 놓은 것을 보고 “샘플 옆에 우리나라 전통 신발 전시도 함께하여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 제안하니 남편이 흔쾌히 동의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나는 우리 전통 신발을 모으는 일에 열중하게 되었다. 그 일은 내게 큰 재미와 함께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다. 신발박물관에 신발박물관이 차려지던 모습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흐뭇한 추억이다. 그때 모았던 전통 꽃신, 나막신, 가죽신, 신짚 등은 남편이 사업업종을 바꾼 것을 계기로 2000년도에 이화여대 박물관에 46건을 기증하였다.

그리고 평생 모아 온 전통 장신구를 2024년에 모교인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에 모두 기증하게 되었다. 기증하기 전에 딸에게 나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용무늬 옥잠 같은 것은 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귀한 물건이라 들었기에 혹시나 엄마의 기증이 서운하게 여겨질까 해서였다. 호박, 밀화, 은, 진주로 장식된 여인네 뒤꽂이, 금파(호박 중에 가장 투명도가 높은 것)와 대모(거북이 등)로 된 갓끈들. 어린이 노리개 등은 수집에 정성을 기울인 물건들이다. 그러나 딸은 엄마가 모교의 박물관에 기증하면 엄마의 수집품이 더 빛을 발하는 것이라며 격려해 주었다. 경운박물관으로 기증하러 오는 길도 딸이 동행해 주어 더욱 기쁜 발걸음이 되었다. 부디 나의 기증품들이 수시로 전시되어 동문들과 관람객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좋겠다.



뒤꽂이



노리개



은장도



비녀



세월 속에 깃든 미감

이미영 54회	30
안정남 54회	34
전경의 54회	37
최인려 57회	38
윤난지 60회	41
양승화 61회	45
박정숙 60회	50
이은화 63회	52
김정진 64회	54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아이 돌복



사규삼

고려대학 병원장을 지낸 남편 박용균(1943~2007)의 휴스턴 유학 시절인 1971년, 아들 장원의 첫돌을 맞게 되었다. 시어머님은 새로 지은 손자의 돌복과 함께 오래된 어린이 사규삼을 보내오셨다. 연두색 숙고사 원단에 검은 선을 깃, 도련 등에 두르고 그 위에 수복강령(壽福康寧), 만수무강(萬壽無疆) 등의 글씨를 금박으로 마감한 사규삼은 남편이 돌날에 입었던 것이라고 하셨다. 23살의 젊은 새색시였던 나는 주위 유학생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옷을 입히고 돌상을 차렸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돌상을 받은 남편의 모습, 사규삼을 입고 있다.



아들의 첫돌, 같은 사규삼을 입은 모습

우리 아들의 돌복 위에 그 사규삼을 입혀 사진으로도 찍고 잘 간직하고 있다가 총 227건 357점의 유물을 수차례에 거쳐 경운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색동두루마기



색동마고자

친정어머니(유옥형, 1927~2010)는 나의 돌복인 색동두루마기를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발견하고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함께 기증한 것이다. 길, 깃, 쏜, 무 등에 오방색을 사용하고 붉은 깃과 붉은 고름을 달아서 여아의 돌복임을 나타냈다.



나의 어린 시절, 색동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제사상과 제기는 나의 친정에서 사용하던 유물이다. 매년 증조할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4번의 제사를 지냈고 설에는 집에서, 추석에는 산소에 가서 차례를 지냈다. 아버지(이철승, 1926~1987)가 돌아가신 후에는 제사가 추가되었다. 제사에는 남자들은 검정색 양복을 입었고 여자들은 옥색 치마, 흰 저고리에 장식이 없는 민족두리를 쓰는 게 법도였다. 나도 나의 며느리들에게 제사용 한복을 만들어 주었다. 내가 어렸을 때 민족두

리를 쓴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난다. 조상님께 절을 할 때 남자는 2번, 여자는 4번 하는 것이 기본 법도였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여자도 2번씩 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였다.

제사음식은 밥, 국, 탕, 물김치, 세 가지 나물, 전과 적(고기, 생선, 닭), 삼색 과일, 감, 약과, 한과, 다식, 과자, 꽃감, 생률, 대추, 고기포, 북어포, 떡, 식혜를 놓았다. 제사를 지내기 일주일 전부터 어머니는 동대문 시장의 단골 채소가게에 가서 필요한 재료를 주문하고 음식을 준비하셨다. 탕은 양지머리와 사태를 2시간 이상 고아 탕을 만들고 고기는 건져 눌러서 편육으로 만들어 찌다. 국물은 기름을 건져 맑은 국물에 무를 조금 크게 썰어 잘 무르게 고아주고 요즘은 좀체 볼 수 없는 움파를 찌던 기억이 난다. 움파는 쪽파와 대파의 중간 굵기로 색이 연하고 향이 진했으며 식감도 부드러워서 나물이며 적과 같은 양념으로 안성맞춤인 귀한 재료였다.

나는 일곱 자매의 맏이여서 결혼 전까지 제사음식 준비도 많이 참여하였다. 계란 지단을 썰거나 호두를 물에 불려 이쑤시개로 껍질을 까서 하얗게 준비해 꽃감말이를 하는 일, 잣의 꼭지를 따서 식혜에 띄우는 일, 껍질 깠 은행꽃이를 끼우는 일은 내 담당이었다. 제사 접시는 조금 우묵하여 음식을 고이려면 쌀을 깔고 그 위에 창호지를 풀로 붙여 깔끔하게 만들어 주었다. 삼단으로 음식을 이쑤시개로 서로 연결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쌓는 기술이 필요하였다.

결혼 후에 남편의 유학으로 미국 생활을 오래 했으니 친정의 제사와는 떨어진 시기가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사를 절로 모시면서 제기는 우리 집에 간직하고 있다가 박물관으로 기증하게 되었다.

우리 집안은 연안 이씨 월사 이정구의 12대손이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늘 부모님으로부터 월사의 집안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선비정신을 지키라는 말씀을 듣고 자랐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집 대청마루에는 증조할머니의 글씨가 걸려 있었다. “마음은 항상 정직하게 가지고, 뜻은 높이 지니어라. 일은 정성껏 하고 근검저축하여라. 자손은 상당한 교육을 시키고 집안은 화평하게 다스려라.” 매일 아침 보는 글이라서 저절로 감화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제사상에 올라간 제기

현대적 미감의 시어머니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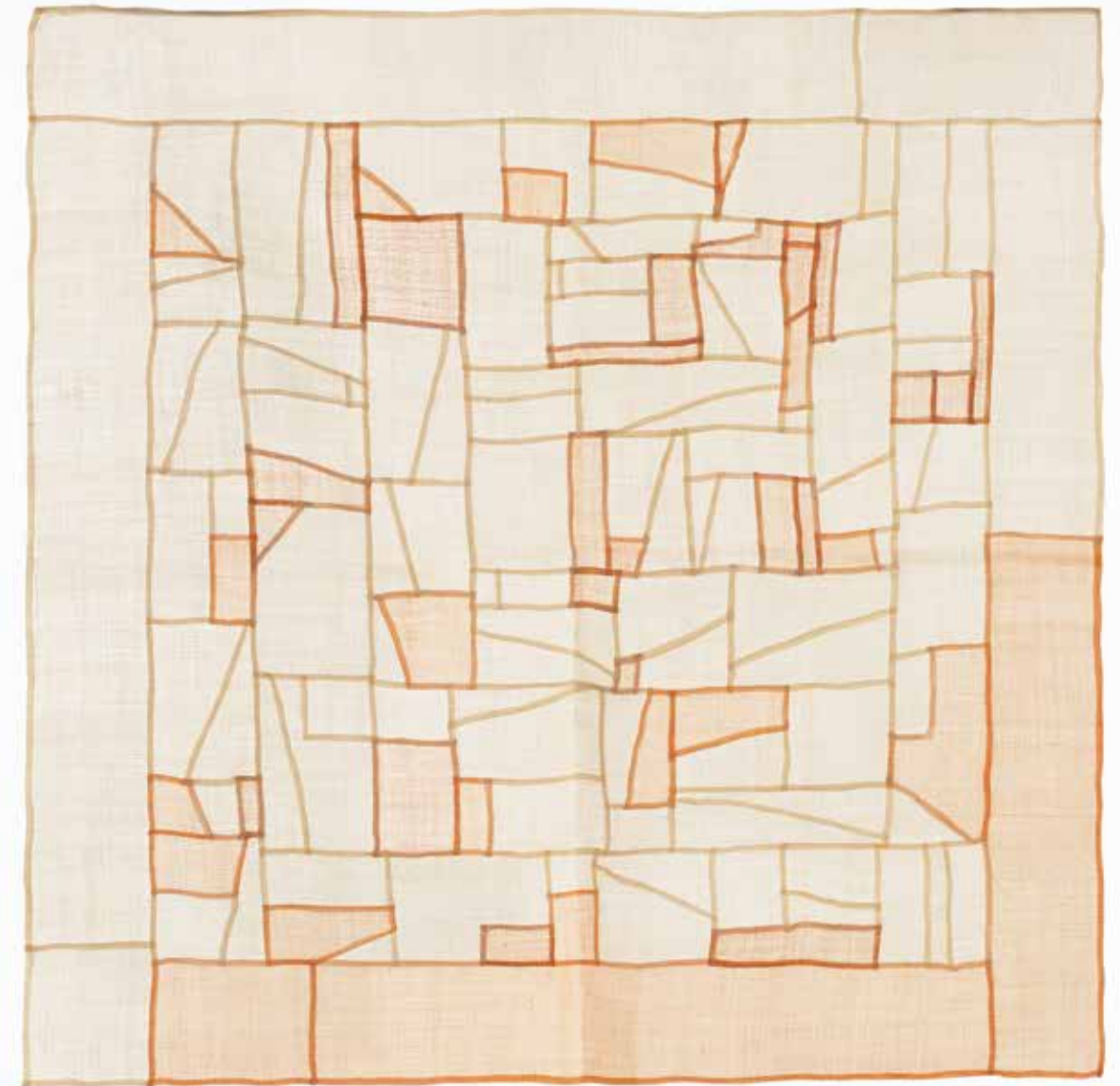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약혼을 했다. 남편이 유학을 떠났고 나는 그다음 해에 남편에게 가지기로 하고 학교를 다닐 때였다. 어느 날 시어머니 이기옥(1924~2021)은 종로 2가의 주단집에 데려가 폐백용의 당의와 함께 여러 벌의 한복을 맞추어주셨다. 그러나 대학 생활 내내 마땅한 옷이 늘 아쉬웠던 나는 그 한복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미국 가면 뭐 파티만 할건가... 속으로 좀 불만이 있었다. 그보다는 당시에 새로 출시된 노라 노 기성복에 더 관심이 많았다. 맞추어 주신 당의를 입고 일가 어른들께 폐백을 드렸다. 그리고

한복들을 옥색 고무신과 함께 고이 싸 들고 유학을 떠났다.

1970년 초반의 미국 대학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세상이었다. 학생들은 베트남전 반대를 강하게 표출하며 시위가 잦았으며 남녀 모두 허름한 옷과 신발, 긴 머리로 기성세대에 반발하고 있었다.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젊음이었다.

노라 노 옷을 사오지 않은 건 신의 한수였다. 그 한복들도 거의 입을 기회가 없었다. 10년 뒤 귀국하면서 그대로 들고 왔다. 짐을 싸면서 보니 한복들이 참 아름다웠다. 개나리색이었던 노랑 반희장저고리는 연한 미색이 되어있었고 새색시 같고 봄을 연상시키던 분홍저고리는 2월 초의 봄같은 살짝 차가운 분홍이었다. 그리고 초록 저고리와 깊은 와인색의 붉은 치마는 한복이 아름답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했다.



조각보

시어머니는 평상시에도 취미가 바느질이었지만 혼자 되신 뒤로는 바느질만 하고 지내셨다. 특히 보자기와 조각보에 더욱 몰두하셨다. 어느 날 어떤 천을 사다 드리면 좋을까요 하고 여쭙었더니 새 천은 필요 없다고 하신다. 그 대신 누가 입던 헌 옷이라든가 오래된 천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신다. 그리고 그 천들이 천연섬유였으면 좋겠다고 하신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다. 사실 그런 천들을 찾기는 쉽지는 않다. 나는 우선 내가 갖고 있는 당신이 해주셨던 그 한복들을 전부 다 드렸다. 그 천들은 아름다운 조각보로 탄생하였다.

조각보는 시간을 담는 예술이다. 화사한 천 조각을 이리저리 배합하고 작업하신 뒤에도 반드시 묵은 천으로 ‘눌러주어야’ 한다고 하신다. 작업 옆에 취한 어느 날 묵은 천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다고 하신다. 그 ‘눌려진’ 조각보들은 무언가 이야기가 있는 작품이 된다. 조각보는 또 노동예술이기도 하다. 여인들이 부엌에서 행주로 도시락보로 개나리 붓짐으로 쓰일 때 땀방울, 반찬 자국, 손때 등이 묻어 있는 해진 보자기 앞에 우리는 잠시 조용히 들여다보게 된다. 어머님은 소녀적 대청마루 위에 찢 옥수수 바구니를 덮던 그 베보자기를 잊지 못하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부엌 한구석에서도 항상 조각 보자기를 수선하시던 당신의 친절어머님이 생각나신다고 하셨다.

시어머니는 황해도 봉산에서 출생하였다. 사리원여고와 숙명여전 전수과를 나오셨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문학전집을 출판한 한성도서 주식회사를 세운 이종준님의 만딸이었다. 이종준 할아버님은 사리원에 조양농업학교를 세워 학생들과 함께 농사지으며 기술을 가르쳤다. 후에 사리원농업학교에 병합되어 1947년 공산당에 빼앗길 때까지 많은 영농인재를 배출하였다. 남편 강홍빈(1945~)은 외할아버지를 늘 농민모자를 쓰고 농사 짓는 교장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광수의 소설 ‘흙’의 주인공이었다는 말도 있었다.

어머님은 십자수, 레이스 뜨기, 퀼트 등을 평생 하셨는데 이후론 전통보자기를 현대적으로 재현하는데 몰두하셨다. 오래된 천을 좋아하셔서 우리 가족은 ‘옛날 천 구하기’라는 프로젝트도 실천하였다. 실천을 끊어오면 브로콜리, 시금치, 양파, 치자 물에 담구어 자연스러운 색감을 찾으셨다. 어머님의 작품들은 그래서 깊은 색상의 현대회화를 보는 것 같았다. 새 보자기를 만들면 외며느리인 나에게 꼭 의견을 묻곤 하시고 꼭 반영하셨다. 이렇게 어머님의 정성과 미감이 깃든 보자기와 복식 31건 31점을 경운박물관에 기증했다. 그중에서 보자기가 이번에 전시까지 된다고 하니 마치 친정에 데려다 놓은 듯 기쁜 마음이다. 후학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전경의 54회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음 V

외할머니의 뛰어난 솜씨

2020년 가을 이사를 앞두고 집을 정리할 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외할머니의 자수 작품을 경운박물관에 기증하였다. 굴레, 수저집, 베갯모와 조각보 등 12건 34점이었다. 그중에 돌띠는 특별히 예뻐서 액자로 꾸며 새로 이사한 집에 걸어두고 할머니와 어머니를 기억하곤 했는데 외할머니의 귀한 솜씨를 자랑하고 싶어 2년 후에 다시 기증하게 되었다.

외할머니는 평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술대학에 입학하여 일본 유학을 갔으나 1년 후에 할아버지와 결혼으로 학업을 중단하였다. 학교의 가정 선생님을 하라고 추천이 들어올 정도로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다고 한다. 당시 광산을 운영하시던 할아버지와 2남 1녀를 기르며 아들을 미국 유학까지 보내셨다고 한다. 해방 이후에 월남하고 한국전쟁을 치르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바느질은 계속하셨다고 한다. 어머니를 따라 외가에 가면 고운 색실로 수를 놓고 한복을 지으시던 할머니 모습이 기억난다. 어머니는 할머니의 조각보며 굴레 등의 수 작품을 받아 우리 형제들의 명절 빔으로 예쁘게 입혀 주었고 돌아가실 때까지 귀하게 간직하였다.

외할머니의 수는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의 수와 달리 문양이 독특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더구나 미술을 전공하였으니 조각보의 색감, 디자인이 특히 아름답다. 가끔씩 혼자 즐기던 할머니의 솜씨를 많은 후학들이 즐기고 연구할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이다. 할머니도 당신의 솜씨가 보물이 되어 전시되니 분명 기뻐하시리라 생각된다.



돌띠, 1900년대 이전

어린 날의 추억이 담긴 옷



예닐곱 살 어린 시절의 기억 속, 옛 한옥 부엌 위 낮게 드리운 다락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보물창고였다. 6·25전쟁이 남긴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아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수선했던 시절, 다락에 오르면

크고 낡은 가죽 트렁크 속에 누렇게 바랜 수십 권의 족보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 싸리나무 껍데 안에서 빛나던 고운 꽃분홍빛 옷가지들,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 어머니(유경희, 1928~2023)의 옷가지 사이에서 찾아낸 이 솜두루마기는 바로 그 어린 날의 아련한 추억 속 옷이다.

이 두루마기는 1920년경, 할머니(김을민, 1900~1954)께서 외아들이셨던 나의 아버지(최진배, 1926~2019)를 위해 직접 지으신 것이다.

돈녕부 도정이신 최효항(崔孝恒) 증조부님과 익안대군 후손 이계완의 딸이신 증조모님을 모신 우리 최씨 가문은 안타깝게도 남성들의 수명이 길지 못한 내력이 있다. 가문을 이어갈 자손을 건강하게 키워내야 한다는 할머니의 책임감과 염원은 얼마나 간절하셨을지. 혹여 겨울 찬 바람에 어린 아들이 감기라도 들까 염려하며 한 땀 한 땀 솜을 두겹게 넣어 지으신 이 두루마기는, 단순한 옷이 아닌 할머니의 깊은 사랑과 기도의 징표였으리라. 남아용 옷임에도 빛 고운 분홍 명주를 쓰고 수복을 기원한 정성, 그리고 궁중의 바느질 양식을 떠올리게 하는 섬세한 솜씨 속에는 자손의 안녕을 바라는 한 여성의 숭고한 염원이 담겨 있다. 아쉽게도 아버지가 이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은 남아있지 않지만, 옷감의 결마다 스며든 온기는 지금도 생생히 느껴진다.

전쟁은 한 개인과 가문의 역사를 통째로 흔들어 놓곤 한다. 사진도, 정교한 기록도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옷을 지은 이와 입은 이의 아련한 기억,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만이 역사의 고리를 외롭게 이어줄 뿐이다. 우리 가족사 역시 그러했다.

다락방 속 낡은 가죽 트렁크와 족보, 맑은 광채를 띠던 양털 안감의 갓저고리, 싱거 미싱, 수많은 그림이 그려진 작은 백과사전, 그리고 어린 내가 손에 쥐고 놀던 온갖 광물 표본들. 그 모든 소중한 삶의 단서들이 언제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아쉬움이 깊게 남는다. 가치를 미처 깨닫기도 전에 흘러가 버린 것들에 대한 그리움은 이 작은 두루마기를 통해 더욱 아련하게 피어오른다.

미국 유학 시절 언어와 문화의 장벽 앞에서 외롭고 당황스러웠던 나에게 먼저 가만히 다가와 준 이가 바로 친구 캐롤(Carol Snater)이었다. 수업이 끝나면 캐롤은 조용히 내 곁으로 와 차근차근, 그리고 따뜻하게 수업 내용을 설명해 주곤 했다. 그 다정한 말 한마디가 먼 타국에서 헤매던 내 마음을 얼마나 깊이 위로해 주었는지 모른다. 그렇게 시작된 캐롤과의 인연은 반백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변함없는 우정으로 이어져 왔다.



캐롤이 선물한 여아 원피스, 1920년대

2018년 12월, 캐롤이 두바이로 나를 찾아왔을 때 전해준 귀한 선물 속에 작은 여아 원피스가 있었다. 스웨덴 출신 아버지와 독일계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캐롤을 위해 그녀의 외할머니가 직접 손으로 지어주신 드레스였다. 여든을 훌쩍 넘긴 캐롤의 나이를 떠올려 보면, 이 드레스의 나이 역시 최소한 여든 해는 넘은 셈이다. 섬세하고 고운 코튼 머슬린(Cotton Muslin) 위에 사랑스러운 손녀를 위해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인 흔적이 깃들여 있다. 투박하고 커다란 손으로 어찌 이리 세밀하게 목둘레와 소매 끝을 바인딩했는지, 볼 때마다 감탄과 경이로움이 밀려온다.

독일계 이민 여성으로서 낮에는 병원 간호사로 억척스럽게 일하고 밤에는 집안일을 돌보며 평생을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사셨던 캐롤의 어머니. 그리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외할머니. 두 독일 여인의 부지런한 손끝에서 탄생한 것은 비단 이 원피스뿐만이 아니었다. 늘 내 가방 속에 고이 접어 품고 다니고 싶은 하얀 머슬린 손수건과 하얀 면사로 정성껏 떠내려간 화려하고 아름다운 테이블보 역시 지금까지 내 삶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소중한 보물이다. 캐롤과 그녀의 어머니는 언제나 깊은 사랑과 환한 미소로 나를 반겨주던 참 따뜻한 분들이었다.

어느덧 긴 세월이 흘러, 우리들의 수많은 추억과 이야기가 깃든 이 작은 옷 한 벌을 경운박물관에 기증하게 되었다. 빗바랜 직물 위에 겹겹이 쌓인 한 가족의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국경을 넘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우리 두 사람의 아름다운 우정의 역사를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기쁘다.

역사는 거창한 기록뿐만 아니라, 이처럼 작고 소소한 삶의 흔적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라 믿는다. 비록 한 가문의 작은 추억 한 조각일지라도, 함께 나누고 기록할 때 우리 모두의 커다란 역사 속에 한 페이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보며, 가족사의 소중한 단면을 세상에 꺼내어 공유할 수 있도록 뜻깊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경운박물관 설영자 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린다.

아버지의 텍시도, 사랑의 지표



모닝코트, 1952년

얼마 전 나는 어머니(원경애, 1928~)의 금고를 정리했다. 어머니가 기억력의 쇠퇴로 금고 번호를 자꾸 잊으셨기 때문이다. 금고 속에서는 현금뿐 아니라 아버지(윤석영, 1928~2009)의 연서들도 나왔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경애 애끼(기)에게’로 시작되는 그 편지들에는 결혼 1년 후에 신부를 시택에 남겨둔 채 캐나다로 유학 간 신랑의 애타는 사랑이 절절히 묻어 있었다. 그 연서들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니... 남편의 결혼식 예복을 끝까지 품고 있었던 깊은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텍시도도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던 날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장롱 속의 평범한 나무 상자를 열어볼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나는 그날따라 그 상자에 눈이 갔고 그것을 열자마자 너무나 놀랍고 반가운 물건들을 마주하고 한동안 말을 잊었다. 그 속에는 내가 처음 본 텍시도뿐 아니라 신혼 때 입으셨던 한복, 내가 익히 보아온 스웨터, 크리스마스 때 입으시던 빨간 조끼 등 아버지의

옷들이 있었다. 옷장 한 칸에도 커버 씌운 옷걸이에 코트와 정장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왜 그동안 이것을 나에게 보여줄 생각을 안 하셨을까? 아버지의 인생이 담긴 이 물건들을 통해 어머니는 혼자 외로이 아버지를 만나 온 것일까? 천국에서 아내를 기다릴 남편을 철석같이 믿으며...



1952년 11월, 부모님의 결혼

1928년생 동갑내기인 두 분의 사랑이 시작된 것은 한국전쟁 중 피난지 군산에서다. 군산의 부유한 정미소집 아들이었던 아버지는 서울 공대를, 생활이 불안정한 독립운동가(원용은, 1901~1952)의 딸이었던 어머니는 서울 상대를 다니셨는데, 전쟁이 발발하자 두 분 다 군산에 내려오셨다. 어머니는 부산으로 가는 피난선을 놓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미군 장교의 타이피스트로 일하셨는데, 운명이었는지 아버지는 그 장교의 통역관이셨고 따라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가 주어졌다. 대학교 동문인 두 분은 동문회에서도 만나셨고, 서울에서도 본 적이 있다는 어렴풋한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셨다. 출신 지역이 중시되던 당시에 본적이 충청남도라는 공통점도 축매제가 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절세미인인 어머니를 아버지는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셨을 것이다. 바이올린 연주와 말타기를 즐기는 한량이었던 아버지는 잉그리드 버

그만을 닮은 어머니를 ‘바키’라는 애칭으로 부르셨다고 한다. 그 후에도 나는 여러 애칭을 듣고 자랐는데, 미미(美美)라는 듣기 민망한 애칭도 생각한다.

두 분은 1952년 11월에 결혼하셨는데, 그날 아버지가 입으셨던 예복이 이 텍시도다. 어머니가 입으셨던 한복이 남아 있지 않은 게 아쉽다. 몇 년 전 어머니를 모시고 군산의 동국사를 방문했는데, 당신의 결혼식장을 단번에 알아보셨다. 개복동 교회(현 개복 교회)를 다니셨던 할머니가 왜 아들 결혼식장으로는 동국사를 택하셨는지 지금도 의문이다.

이렇게 만나 결혼하신 두 분은 첫째딸의 돌이 갓 지난 1954년 말부터 5년 동안 떨어져 지내게 되는데, 어머니는 며느리를 절대로 함께 보낼 수 없다고 잡아 둔 시부모를 평생 원망하셨다. 그러나 그 이별 기간은 두 분의 사랑을 더욱 키운 축매제가 되었다. 내가 사춘기 때 발견한, 그러나 차마 읽지 못한 트렁크에 가득 찬 편지가 그 증거다. 어머니는 부끄러워 그 편지를 다 태워버렸다고 하셨는데, 그중 몇 개는 남겨 금고에 보관해 오신 것이다. 아버지는 편지뿐 아니라 도너츠판에 담긴 욕성을 통해서도 사랑을 전하셨다. “난지야, 난지야 이리 날라 오너라...” 어릴 때 들은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5년을 수학하고 돌아오신 아버지는 상공부에 근무하면서 성북동에 살림을 차리셨고, 처음으로 시댁을 벗어난 부부는 편지글로만 표현해 온 사랑의 불씨를 마음껏 살려냈을 것이다. 그 후 두 살 터울로 연달아 태어난 두 남동생인 윤여정(1958~)과 윤여진(1960~)이 그 증표다.

화학공학을 전공하신 아버지는 우리나라 화학비료 생산의 시대를 연 충주비료공장과 그 후속 공장인 진해비료공장 설립을 진두지휘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셨고 울산의 동서석유화학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쳤다. 그동안 우리 삼 남매는 방학마다 아빠 계신 사택으로 내려가기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전원과 도심을 오가며 쌓은 성장기의 풍부한 경험은 우리 삶에 큰 자양분이 되었다. 한편 미국인 간부들이 많이 살던 사택에서의 삶은 서양우월주의라는 자본주의 신화에 몰드는 계기도 되었다. 우리는 일찍부터 아이스크림과 햄버거를 알게 되었고, 너무나 맛있는 그 음식들을 통해 서양을 동경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 유학을 인생의 당연한 코스처럼 여기면서 자랐고 남동생들이 모두 이를 실천하였다. 나 또한 필요한 시험들을 보면서 유학을 준비했으나 결혼 등을 계기로 유학을 실행하지는 못했다.

부모님이 입버릇처럼 우리에게 도나 리드 쇼에 나오는 이층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 약속을 결국 동교동과 연희동의 집을 통해 실천하신 것도 이런 옥시덴탈리즘(occidentalism)의 구현이 아닐까? 그리고 환갑을 갓 지낸 1989년, 캐나다로의 이민을 결행하신 것도 이런 서양에 대한 오랜 동경의 결실이 아닐까?

몬트리올로의 이주 이후 두 분은 밴쿠버를 거쳐 큰아들이 살고 있는 LA에 이르기까지 마치 결혼 초의 이별을 보상이라도 하듯 단둘이 방랑(?) 생활을 하셨다. 물론 그 편지와 웃도 함께였고, 2009년 아버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영구 귀국하실 때도 함께 왔다.

이처럼 아버지의 텍시도는 나에게 근대기 한 커플의 불타는 사랑, 그리고 그것을 만든 우리 근대 역사의 지표(index)처럼 보인다. 기호학에서 지표는 실재의 흔적을 통해 실재를 의미하는 기호다. 마치 그림자처럼, 그리고 빛의 그림자인 사진처럼, 어떤 대상 혹은 사건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텍시도에서는 서양식 교육을 받은 두 남녀의 서양식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만든 우리 근대기 역사가 읽힌다. 그 옷은 전쟁과 전후 복구, 산업화가 이루어진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인 것이다.



부모님과 촬영한 첫들 사진



부모님의 노년 모습

나아가 군산 대환양복점에서 만든, 즉 ‘메이드 인 코리아’인 그 옷은 외래문화와 현지 문화의 만남, 그 만남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삶의 현장을 증언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결혼사진 속의 양복 입은 아버지와 한복 입은 어머니의 모습처럼, 서양으로의 유학을 꿈꾸고 그것을 실천한 남편, 남편을 못 따라간 아내의 서글픈 삶, 그 삶을 만든 한국식 가부장주의 등 동서양 문화가 부딪치는 현장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어머니는 결혼식 때 받은 혼서지도 간직하고 있는데, 본인 돌아가시면 그것을 함께 태워달라고 하신다. “그래야 아빠가 천국에서 날 찾아오지”라고 하시면서. 부디 천국에서는 두 분이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떨어져서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일이 없기를 기원한다.

양승화 61회

아름다운 기준, 소중한 모습 V

부모님의 언약이 담긴 사주단자



경복궁 연못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어머니(좌)

저희 엄마 남궁주(28회, 1922~2010)의 외조부님은 동경 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충청북도 도지사와 중추원 참의를 지내셨다고 합니다. 외조부의 높은 학구열로 엄마는 초등학교를 7살에 들어가서 당시 교동에 교사가 있는 4년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당시는 수학여행으로 부산에서 관부연락선을 타고 교토와 나라로 수학여행도 갔으며 경복궁 연못에서 스케이트도 타고 나름 낭만적인 학창 생활을 하신 듯합니다.

졸업 후 춘향리와 같은 꽃다운 16세에 일본 릿쿄대학 유학생이었던 양윤석(1918~1972)님과 부민관에서 1938년에 결혼하셨습니다. 부민관은 서울 태평로에 남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서울시의회 청사로 사용 중인 곳입니다. 결혼식 사진을 보면 아버지는 텍시도를, 엄마는 미국영화에 나오는 디자인의 드레스를 입고 화동도 있는 신식 결혼식이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의 드레스를 입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는 용인에 만석꾼 부잣집 아들로 지금 용인 민속촌에 있는 99칸 양씨 양반집에 사셨고 아버지가 태어난 생가인데 민속촌 개발로 인해 수원으로 이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릴 때 여름방학이면 증조할머니 생신에 일가친척들이 모여 며칠씩 묵으면서 생신 잔치를 해드리곤 했습니다. 그때는 차를 타면 멀미도 많이 나서 중간에 쉬며 원두막에서 참외도 먹고 올 때는 노랑진 독일빵집에서 스폰지 케익을 사 가지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식을 하고 아버지와 일본에 같이 가서 무사시노 음악대학을 다녔으나 임신으로 학업을 그만두고 얼마만 한국으로 나와 큰언니(1939년)와 큰오빠(1941년)를 수원집에서 낳고 아버지가 졸업 후 귀국하여 서울 혜화동에 집을 마련해서 서울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일본 신혼 시절에 같이 유학생으로 계시던 5촌 고모와 친구로 지내며 그 당시 신여성처럼 몰래 담배를 피워봤다는 비밀을 제가 어른이 되고서야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해방 후 군정청에 다니다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6.25전쟁 때는 다행히 아버지 회사에 트럭이 있어 남들처럼 고생은 안 하고 부산으로 피난 가서 작은 언니를 낳았는데 세 살던 주인집에서 기저귀 빼는데 물을 많이 쓴다고 꾸지람을 들었지만 다른 피난민들에 비하면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하셨습니다.

혜화동 한옥집에서 둘째 오빠(1946년)와 셋째 오빠(1948년)를 낳고 부산 피난 시절 언니(1952년)를 낳고 서울로 환도해서 같은 혜화동 집에서 저를 1954년에 낳고 1973년 서교동으로 이사 가기까지 오랜 기



증조할머니 생신 잔치

간 한옥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이층집 사는 애들이 부러워 이층집으로 이사 가자고 졸랐었는데 제가 미국 와서 보이는게 양옥집이니 한옥이 그리워 내가 돈 벌어 그 혜화동 집을 다시 사리라 내심 생각했습니다. 어느 해인가 가보니 다른 동네들은 다 번쩍번쩍 알아볼 수 없이 동네가 변했습니다. 혜화동만 그 골목길 그대로 목욕탕은 사우나가 되고 연세상점은 마트가 되고 명칭만 변했는데 우리 살던 집은 다세대주택으로 변해서 쓸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했던 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 소중함과 그리움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엄마는 그 시대의 어른들처럼 일제시대와 미 군정시절, 6.25전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등 격동의 소용돌이를 지나면서도 술 안 드시고 꼬박꼬박 정시퇴근하는 남편의 아내로, 성격이 다른 6남매의 엄마로 또 주위 분들에게 대접하고 베풀며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혹시 낮에 자녀 중에 하나가 준비물 빠트렸다고 전화라도 올까봐 외출도 잘 안 하셨습니다. 외부 활동은 육영수 여사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설립한 양지회 모임 외에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엄마가 51살이던 해인 1972년에 아버지가 55살의 나이로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에 있던 큰오빠나 제대해서 복학한 둘째 오빠, 군대 가 있던 셋째 오빠 모두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가 안 되어서 아버지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언니가 결혼을 하고 손주들을 낳자 엄마는 손주 재미에 빠져 언니네 아파트 옆 동으로 이사하셔서 외롭지 않게 계시다가 뉴욕에 있는 큰오빠 초청으로 이민 가서 마침 유학 준비를 하던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유학생 신분보다는 영주권자 신분이 지금이나 그때나 더 편했으니까요.

나중에는 엄마도 나도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나는 무교고 엄마는 불교 신자여서 엄마와 큰오빠는 맨하탄에 있는 원각사라는 절에 다니셨습니다. 맨하탄에 혼자 살던 나는 엄마와 오빠네 식구도 만나고 절밥도 얻어먹을 겸 일요일에는 법회가 끝날 때쯤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내가 남자(당연히 한국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서 걱정되었는지 젊은 한국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넌 지시 “믿지는 말고 교회에 나가볼래?”라고 하셔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31살에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나보다 두 살 위인 언니가 아이들 셋을 데리고 미국에 와서 나와 같은 동네에 자리 잡고 엄마도 다시 미국으로 오셔서 언니와 같이 살며 네 남매가 가까이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산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를 누가 돌볼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산소를 관리해 주시던 분도 연세가 많아 걱정 중에 화장을 해서 뿌리자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결정하기 어려우니 엄마 당대에 결정하신다며 본인도 돌아가시면 화장을 해서 뿌리면 어딘가 바다에서 아버지와 만날 거



부모님 신혼시절



외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어머니

라는 낭만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태평양 쪽이고 엄마는 대서양 쪽이시기는 한데 지구는 둥그니까 어디선가는 만나실 수도 있겠지만 천국서 만나면 제일 좋겠지요.

엄마의 경기여고 근성은 미국에서도 발휘되었습니다. 미국 이민법이 점점 까다로워져서 시민권을 따기로 결정하고는 예상 문제집을 달달 외우고 노트필기도 몇 권을 하며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하게 합격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의 국가를 가사까지 외우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넘어 큰오빠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하고 매일 아침 의자에 꿇꿇이 앉아 한 시간씩 반야심경 읽고 기도하던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매일 아침 한 시간씩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언니와 함께 살다가 교회 근처 노인 아파트로 이사하고 어느 날 산보하다 넘어져 요양원에 2년쯤 계시다 88살 미수를 한 달 반 남겨놓으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인가 엄마가 결혼할 때 받은 사주단자가 어느 서랍에 들어있으니 엄마 죽어 화장할 때 같이 태워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당시 황망해서 잊고 있다가 어머니 집 정리할 때 생각이 났지요. 엄마가 원하신 건 엄마 가실 때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는 사주단자와 함께 가시겠다는 뜻이었을텐데 따로 태우기도 그렇고 내가 언제까지 갖고 있을 수도 없어서 고민하던 중 엄마가 그리 자랑스럽게 여기시던 경기여고의 경운박물관에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도 자신의 사주단자가 경운박물관에서 보물로 자리 잡아 후학들에게 훌륭한 자료로 소개되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주보에 쌓여 있던 사주단자와 고전문, 1938년

한복 장인이 제작한 활옷

시어머니 김덕창(1925~2007)님께서는 1961년 종로에 구정상회를 열며 한복과 인연을 맺으셨다. 이후 1970년 한국주단으로 상호를 변경하셨고, 1989년에는 남편이 청담동에 분점을 개업하였다. 당시 상점 직원이 육영수 여사의 한복을 지어 드리러 청와대를 드나들던 일은 귀한 추억 중 하나다.

과거 우리 한국주단에서는 신랑 신부가 폐백을 드릴 때 신부에게는 활옷과 원삼을, 신랑에게는 단령을 대여해 주곤 했다. 이번에 기증한 유물들은 바로 그 전통 혼례 복식들로, 2009년 창립 48년 만에 한국주단이 문을 닫게 되면서 우리 부부가 소중히 간직해 온 실물들이다. 활옷, 단령, 원삼을 비롯하여 땡기, 대(帶), 아얌 등 혼례에 필요한 구성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다.

그중 활옷은 깃의 좌우 모양과 크기가 같은 맞깃에 깃머리가 둥근 둥그레 깃을 달았고, 전통 격식대로 등술을 생략하지 않고 바르게 지어낸 보기 드문 수작이다. 활옷의 대(帶)에는 변형된 복(福)자와 품격 있는 봉황문이 유려하게 자수 되어 있어 길상의 의미를 더해준다.

사실 이 활옷들은 우리가 직접 지은 것은 아니고, 당시 대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장인을 수소문하여 주문 제작한, 우리에게는 보물과도 같은 것이다. 사업이 한창 번성하던 시절에는 한 벌로 부족하여 두벌을 갖추고 있었다. 2022년 8월 경운박물관에 기증하려고 두벌 모두 챙겨와 펼치던 중 그중 한 활옷에서 1980년 매입 당시 3,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적힌 영수증을 발견하였다. 당시의 3,000만 원은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격에 달하는 액수였으니, 그 활옷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두 벌 중 한 벌은 기증하고, 영수증이 발견된 나머지 한 벌은 다시 가져와 보관하고 있다.

한복의 아름다운 전통미를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셨던 시어머니의 가치관과 맥을 같이하는 나의 모교인 경운박물관에 기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유물이 한국 복식사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증언해 주기를 바란다.



활옷(뒤), 1980년대

가문의 귀한 유산, 할아버지 안경

다섯 점의 안경은 나의 친정어머니(이중옥, 1928~2015)께서 평생 소중히 간직하시다 남겨주신 가문의 귀한 유산이다. 안경다리 한쪽이 탈락되거나 코 연결 부분이 부러지는 등 겉면에 역력히 새겨진 오랜 세월의 흔적들을 볼 때마다 이 유물들이 무엇을 읽고 보고 있었을까 궁금하곤 했다.

그중 내가 가장 애착이 가는 안경이 있다. 이 안경의 테와 다리는 우각이며 알은 짙은 갈색이다. 안경알을 연결하는 중앙의 브리지(산형)에는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여의문(如意紋) 장식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접이식으로 된 학슬(鶴膝) 다리 끝부분에는 끊임없이 굴러가는 진리를 상징하는 수레바퀴 무늬, 즉 법륜(法輪) 장식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다. 당대 최고의 기술과 장인정신이 집약된, 그야말로 고풍스럽고 격조 높은 명품이었으리라 짐작해 보는데 어느 나라 제품인지 알 수 없다.

이 안경들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조부 이현구님께서 혹은 최초로 서울에 터를 잡고 가업의 기반을 닦으셨던 증조부님께서 눈을 밝히실 때 쓰시던 귀물(貴物)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닮은 듯 서로 다른 빛깔을 품은 다섯 개의 동그란 안경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너머로 가문을 일구셨던 조부님의 인자하고 엄숙하셨던 눈빛이 새어 나오는 듯하다.

가문의 자취가 담긴 유물을 행여 상할세라 수십 년 세월 동안 기어이 지켜내신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정성이 없었다면, 이 안경들은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와 모교인 경운박물관에서 관람객들과 마주할 수 있게 된 오늘, 대를 이어온 가문의 시간이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게 되어 형언할 수 없이 흐뭇하고 감회가 깊다.



어머니가 간직해 온 안경

붉은 보자기 속의 첫 돌복



부모님과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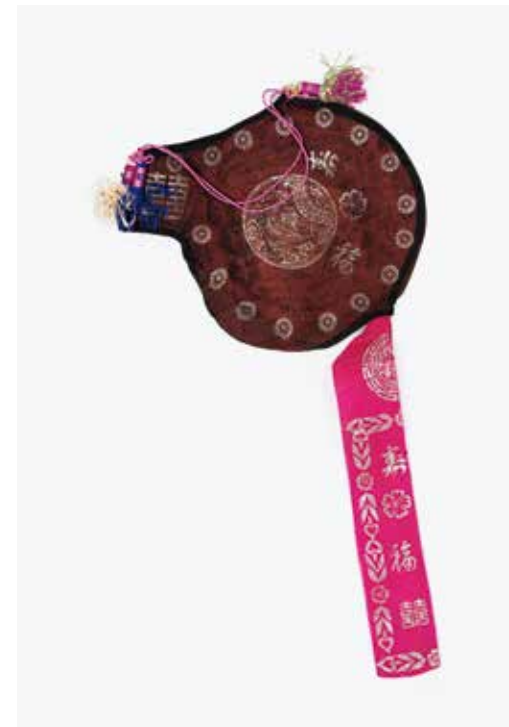
첫돌 기념, 1958년

사랑이 담겨진 이 돌복은 내가 1957년 7월에 태어나 이듬해 인생의 첫 번째 여름을 맞이하며 입었던 첫 예복이다. 나의 아버지 김준홍(1915~2008)과 어머니 이양춘(1922~2022)께서는 6·25 동란 때 함경도에서 남하하여 부산에 정착하셨고, 나는 두 분의 연세 각각 42세, 35세에 비로소 보신 늦둥이 외동딸이다. 그 귀하디 귀한 무남독녀가 그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라며, 나의 어머니는 이 작은 옷 한 벌을 평생의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해오셨다.

어머니가 먼 길을 떠나시고 난 후, 남겨진 유품을 담담히 정리하던 중 생각지 못했던 유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나의 첫 기억이 행여 상할세라 붉은 주머니 형태의 사각 천 사귀를 촌촌히 꿰매어 고이 봉인해 두셨던 돌복이었다. 이후 박물관을 방문하여 관장님과 함께 이 옷을 제대로 펼쳐 보던 그 순간, 65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이제 내 손을 떠나 귀한 기증품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 저미듯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감회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애뜻한 옷을 다시 기증전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작고 양증맞은 돌복의 깃과 소매를 어루만지고 있자니, 오직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를 바라보셨을 어머니의 지극하고 애뜻한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었다. 비록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곁에 계시지 않지만, 당신이 남겨주신 이 소중한 유물 속에서 나는 여전히 부모님의 온전한 사랑을 느낀다.

나는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평생 음악의 언어를 연구하고 집필하는 삶을 살아올 수 있었다. 1996년도에 미국 위스콘신대(매디슨)에서 음악이론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후 서울대 등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지적인 대화를 위한 교양 클래식 수업』, 『롤랑 바르트 음악을 읽다』 등의 저술과 『음악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클래식의 격렬한 이해』 같은 번역서를 통해 음악의 깊이를 전하고 있고 이번 가을에는 지난 학문적 세월을 총결산하는 책 『경계를 허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나의 성장을 품어 안은 이 돌복이, 이제 개인의 추억을 넘어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 세대 유년 시절의 역사를 증언하는 경운박물관의 귀한 소장품으로 영원히 빛나기를 바란다.



조바위, 1958년



돌복 치마저고리, 1958년



깊은 뜻, 귀한 나눔

권병훈	전통복식 '오례' 대표	58
전봉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61
이홍주		64
신도자		66
정인옥		68

기증의 기쁨, 함께 누리는 전통 복식 유물

저는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38세의 청년입니다. 비록 경기여고 출신도 아니고 지인이 경기여고 출신이라든지 관련된 어떠한 인연도 없는 사람입니다. 2017년 이전까지 저는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었던 그저 조선시대 전통 복식을 사랑하는 복식 애호가였을 뿐입니다.

그러던 차에 2017년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에서 진행되었던 전시 <대한제국, 복식에 깃든 위엄>에서 십이장복과 십이류 면류관이 전시되었다는 소식에 십이장면복 재현품을 너무 보고 싶었던 나머지 부랴부랴 찾아갔다가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존재도 몰랐고, 그저 작은 학교 기념박물관으로만 생각했던 경운박물관은 생각보다 내실있고 전시품의 수준도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박물관 학예업무를 도맡는 분 중에서는 졸업생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경기여자고등학교에 있는 기념박물관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무료 봉사도 마다하지 않으며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당시 십이장면복을 보면서 감탄하던 차에 해설사로서 자원봉사 해주시는 졸업생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셨을 때 십이장면복 재현의 참여자 중에서 학교 졸업생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듣고 적잖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박물관의 학예업무를 맡고 계신 박상진 학예사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박상진 학예사님은 저와 함께 유물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를 교류하였고, 해마다 좋은 전시가 있으면 저를 빠짐없이 초대해 주곤 하였습니다. 그런 따뜻한 배려와 마음씨에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던 저로서는 어떻게 하면 학예사님의 업무에 도움이나 보탬이 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대가 다가오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면서 전 세계가 마비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고, 우리나라 유물을 많이 소장하고 있던 일본에서도 가게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난 탓인지 이때 우리나라의 옛 유물들이 제법 많이 판매되곤 했습니다. 이때 저는 우연히 일본 옥션에서 게시된 조선철(朝鮮綴)과 등투구(등나무로 만든 투구)를 국내

로 환수하면서 무사히 소장하는데 성공했고, 이후에는 국내에서 판매 중인 유물 중에서도 관심이 있는 유물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인사동으로 나아가서, 또 어떤 때는 답십리로 나아가서, 아니면 대구에 사는 지인의 협조를 통해서 이래저래 유물을 구입하고 소장하게 되면서 이 소장 유물들을 제가 마냥 집에 두고 소장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좋은 곳에 기증 혹은 기탁하여 박물관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자기 연구 분야에 연구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여러 차례의 고민 끝에 저는 먼저 소장하고 있던 사방관 1점과 정자관 1점, 갈모 1점을 기증하였습니다. 해당 유물은 기증된지 얼마 되지 않아 경운박물관의 개관 20주년 특별기획전 <소색비무색, 흰옷에 깃든 빛깔>에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기증 혹은 기탁한 유물이 바로 전시대에 올라와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은 기증자로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방관



정자관

이후에는 우연히 복식 연구를 위해서 수집하던 사진엽서 두 점이 경운박물관 전시에 활용되면서 기증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점은 비록 슬픔의 역사를 가진 일본인과 대한제국 시기 황실 인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엽서 유물이었고, 나머지 한 점은 벼슬을 했던 양반가에서 혼례식 직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단 채로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저 혼자로는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



갈모

은 유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사동을 다니다가 우연히 지삿갓 유물 1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물을 보면서 경운박물관에서 오늘날 기후 변화 혹은 기후 위기와 같은 자연과 관련된 복식을 전시한다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지인을 통해 구하게 된 갈모 1점과, 조선시대 비가 왔을 때 착용하였던 우구(雨具) 2점을 경운박물관에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갈모는 이번에 전시되지만 지삿갓은 훗날 경운박물관 전시를 위해 활용할 수만 있다면 뜻깊은 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 박상진 학예사의 도움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순종, 영친왕, 완순군 이재완 등을 밝혀내고 1907년 일본 황족 방문 기념 사진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통 복식 애호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복궁에서 진행되는 수문장 교대의식의 출연자 및 사회자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해당 행사의 주최 측에는 조선시대 비가 올 때 착용하는 지삿갓, 갈모, 유삼과 같은 유물을 직접 실견하고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적용하기 위하여 실용적으로 재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뉴스,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멋지다는 반응이 있었고, 이를 통해 지삿갓, 갈모, 유삼과 같

전봉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초대 국가유산위원장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음 V

항일 정신이 투영된 간재 전우 복식



간재 전우 초상(부산박물관 소장)

2017년 초 경운박물관은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제국 12장 면복 일습 재현 사업에 열중하고 있던 와중에 간재 전우(艮齋 田愚, 1841~1922) 후손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간재 전우 후손인 기증자 전봉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이자 국가유산위원회 초대 위원장입니다. 집을 정리하던 중 증조부의 보따리에서 나온 복식을 고민하다 현 경운박물관 복식전문위원이기도 한 김소현 교수(배화여자대학교 한복문화콘텐츠학과 명예교수) 추천을 받아 경운박물관 기증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박물관 학예사는 전봉희 교수 연구실로 가서 인터뷰 후 간재 전우 복식 24점(쓰개 15점, 도포, 제복 3점, 띠 2점, 지팡이 3점)을 기증 받았습니다.

전우는 호남 기호학파의 대표적 유학자이자 항일운동가로 조선 말과 일제강점기에 걸쳐 성리학적 가치를 수호하며 후학 양성에 힘쓴 인물입니다. 을사늑약 이후 학문을 일으켜 도학의 중흥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전라북도 왕등도,

계화도 등 섬에 은거하여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고 저서를 남겼습니다.

대한제국기 인물의 복식에 관한 조명을 고민하던 차에 고종, 순종, 순정효황후, 의친왕, 완순군, 민영환, 유길준과 함께 간재 전우의 복식과 유품도 전시 구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17년 3월 말부터 복식유물 거품 작업 및 보존 처리와 연구를 거쳐 10월 16일 개최한 경운박물관 특별기획전 <대한제국, 복식에 깃든 위엄>에서 최초 공개되었습니다. 전시 연계 세미나 ‘마지막 황실 이야기’에서 간재 전우에 관해 발표하였고, 항일 정신이 깃든 조선 말기 성리학자 간재 전우 복식은 이후 특별전시에 2차례 더 출품하며 박물관 대표 유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간재의 쓰개

석지 채용신이 그린 여러 간재 전우 초상화에도 보이는 소재의 장보관(章甫冠), 상투 위에 썼던 치포관(縑布冠), 삼베와 모시로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쓰개와 제복(祭服) 등 조선 말기 성리학자의 복식은 기증을 통해 집안 한켠에 있던 보따리에서 나와 여러 연구자와 관람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후손의 전언에 따르면, 간재 전우 복식 중 네모난 깃의 방령(方領)깃포에서 보이는 검은색은 당시 나라를 잃었음을 나타내고자 했고 간재가 직접 복식을 만들기도 해서 디자인이 독특합니다.

2026년에는 전통 관모 ‘갓’이 지닌 문화유산적 가치와 현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국가유산청 사업과 연계하여 간재 전우의 갓과 태극 문양이 그려진 갓함의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K-패션의 위상이 커진 지금, 경운박물관이 기증받았던 성리학자 복식이 전 세계에도 보여 질 날을 기대합니다.

글/ 박상진 경운박물관 학예연구사



갓



태극 문양이 새겨진 갓함

이홍주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습 V

의미와 가치를 알 때 비로소 빛나는 물건들

우리 집안은 조선 왕실 후손으로 흥선대원군의 둘째 형님인 흥완군(興完君) 이정응(李晷應, 1814~1848)이 나의 고조부이고, 고종황제의 사촌인 완순군 이재완(李載完, 1855~1922)이 증조부이다. 완순군 할아버님이 가회동 30번지 일대 맹현 고개에 살게 되면서 우리 집안을 맹현(孟峴)으로 부르게 되었다.

완순군은 고종황제의 신임을 얻어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으며 고종황제가 추진한 개혁적 근대화 사업에 적극 협조하였으나 한일합병 이후 모든 자리에서 사직하고, 조용한 말년을 보냈다. 한일합병을 막지 못한 죄책감에 “나의 묘에 비석을 세우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맹현가 후손들
이해영(중앙), 이해길(좌), 이철주(우)



조끼

조부 이달용(李達鎔, 1883~1948)은 한일합병과 동시에 모든 관직과 공직에서 물러나 은둔하며 살았다. 일본 제국주의의 서슬 퍼린 시대에 을사늑약에 항거하여 자결한 충정공 민영환의 딸 민계식

(1902~1938, 나의 큰어머니)을 며느리로 들였고, 만주 항일 독립 투쟁을 이끈 대중교 2대 교주 김교헌(金敎獻, 1868~1923)의 차남을 사위로 맞았다. 장손 이철주(李鐵柱, 1922~1988, 나의 사촌 형, 전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가 학창 시절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돌아왔을 때 기특하다 칭찬하며 기뻐하셨다고 한다. 조부 역시 “묘에 비석을 세우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역사의 격변기에 나라의 왕실 종친으로 겪었을 고뇌와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숙연해진다.

2024년 봄, 경운박물관에서 <모던의 유혹, 황실 종친 맹현가 이야기>라는 특별기획전을 열어 일가 친척들이 소장하던 물건들을 전시에 선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조부께서는 아들이 넷 있었는데 첫째 며느리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이런저런 집안 사정으로 훗날 홀로 남은 할머니는 막내아들인 이해영(1925~1979, 나의 아버지, 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이 모시게 되었다. 그런 연유로 할머니가 남긴 집안의 소소한 물품과 복식 등을 나의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할아버지 이달용이 입었던 마패는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우리 가족들도 처음으로 알고 놀랐다. 나의 누이 집 장롱 속에서 수십 년 고이 잠들어 있던 옷 한 벌이 중요한 복식 자료라 하니 집안에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연구 자료로 쓰이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여 전시를 마치고 13점을 기증하게 되었다. 어린이 옷과 주머니 등은 집안에서 직접 만들어 돌려 입고 쓰던 것들이다. 오래되어 의미를 잘 모른 채 잠자고 있던 물건들을 깨워 가치와 소중함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경운박물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사규삼



전복



신랑 김광수와 신부 신도자의 결혼 모습, 1962년



웨딩드레스(뒤), 1962년
서울공예박물관 자료제공



웨딩드레스(앞), 1962년
서울공예박물관 자료제공

신도자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습 V

노라 노가 디자인한 웨딩드레스

1962년 7월 28일, 나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 결혼식을 올렸다. 주독 한국대사관의 넓은 홀에서였다. 그 당시 나는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주독 한국대사로 부임해 가신 나의 큰 오빠, 신웅균 대사를 따라 독일로 가게 되었다. 독일에 체류하면서 독일 본(Bonn) 대학 독문학과에 적을 둔 한편, 주독 한국대사관에서도 근무하고 있었다. 얼마 후, 나는 독일 체류 중에 알게 된 김광수라는 한국 유학생과 1962년 7월 28일 주독 한국대사관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나는 우리 집안과의 깊은 인연으로 한국에 있을 때에도 늘 옷을 지어 입던 노라 노(34회, 노명자) 여사에게 웨딩드레스를 주문해서 독일로 보내온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렸다. 그날 입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공기가 차단되는 알루미늄 트렁크에 담아서 귀국할 때 가져왔고 지금까지도 새것과 다름없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 웨딩드레스를 디자인하고 지어 준 노라 노가 경기여고 졸업생이므로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에 기증하게 되었다.

나의 결혼식에 입었던 나의 웨딩드레스가 하루만 입고 잊혀져 버리는 드레스가 아니라 그 드레스를 디자인한 노라 노의 모교인 경운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정인옥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습 V

어머니가 마련한 원삼 일습

나는 대학 동문인 경운박물관 이영희 위원의 권유로 박물관에 기증할 용기를 내게 되었고 2024년 6월경 기증품을 전달하게 되었다. 시어머니 안을수 여사(1925~2022)가 1943년 꽃다운 나이에 혼수로 가져오신 손때 묻은 재봉틀은 이미 지난 <재봉틀 연대기, 자봉침> 전에 전시되었다. 친정어머니(이중필, 1930~)께서 보관하시던 원삼, 땡기, 대(帶), 족두리와 비녀 또한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게 되었으니, 내가 기증한 기증품들이 모두 제 자리를 찾아 빛을 보게 된 것 같다.

기증한 원삼은 친정어머니의 깊은 내리사랑이 깃든 예복이다. 어머니께서는 1960년대 말엽, 가문의 첫 며느리를 맞이할 기쁨으로 이 원삼을 정성스레 마련해 두셨다. 당시 오빠의 결혼식 사진을 넣어 도록에 풍성함을 더하고 싶었으나, 아쉽게도 내게 보관된 사진은 없고 새언니는 멀리 미국에 살고 있어 귀한 사진을 미처 찾지 못했다.

이 원삼은 우리 집안의 경사스러운 날마다 함께하였다. 큰오빠 결혼식에서 새언니가 입었던 것을 시작으로, 이후 작은오빠의 결혼식에서도 신부를 빛내었다. 나는 오랜 세월 우리 집안의 가보로 원삼 일습을 정갈하게 보관해 왔다. 세월이 흘러 큰오빠의 아들이 혼인을 치르게 되었을 때 내가 직접 이 원삼을 정성스레 싸 들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먼 이국땅에서 치러진 조카의 결혼식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을 빛내고 다시 한국으로 조심스럽게 가져온 참으로 사연 깊고 애뜻한 옷이다.

백년간약을 축복하며 어머니의 손길을 거쳐 온 이 기증품들이 이제는 개인의 추억을 넘어, 우리 전통 혼례 문화와 복식사를 증언하는 박물관의 귀한 소장품으로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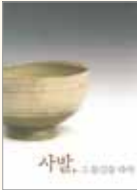
족두리, 19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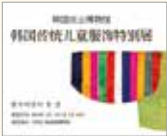
앞땡기와 도투락땡기,
1960년대



원삼, 1960년대

경운박물관 전시 연혁 (2003년 4월~2026년 8월)

	2003년 4월 / 개관전 근세복식과 우리문화		2005년 4월 옛 어린이 옷 그 소중한 어여쁨
	9월 근세복식과 목기전		9월 청계천으로 돌아온 생명 물고기 민화전
	2004년 5월 영부인 예복으로 본 한복의 흐름		2006년 4월 옛 속옷과 침선 겹겹이 깃든 기품
	11월 근세 풍물 사진전		9월 사발, 그 물길을 따라

	2007년 4월 보자기 예술로 승화된 실용		2009년 3월 / 중국은남성민족박물관 한국 어린이 옷 해외전시
	10월 그리운 저고리		6월 해외전시 귀국전 한국 어린이 옷
	2008년 4월 세계민속인형대전 인형들의 합창		10월 색에서 색으로 전통과 현대회화
	10월 경기여고 개교 100주년기념 특별전 한국패션 100년		11월 / 국립고궁박물관 오색창원 (7개 박물관 연합전시 주관)
	10월 / 성곡미술관 경기여고 개교 100주년기념 동문미술전		

	2010년	4월 /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재단 꽃과 나비-그 아름다운 화음 (6개 박물관 연합전시 주관)		2013년	4월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근대직물 100년		2014년	4월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음 II		2016년	4월 인형 꿈꾸다
		10월 경기여고 100주년기념관 개관기념전 아름다운 시작			4월 / 로비전 동문작가 6인전 직조예술, 그 울과 결			10월 분청사기와 현대회화 600년을 흘려온 미학			10월 조선철을 아시나요 일본에 전래된 조선 카페트
	2011년	4월 먼 듯 가까운 그때 사진과 품물			5월 / 로비전 KOSCO전 별별 우리색 이야기		2015년	4월 온고창신 우리 과학 들여다보기		2017년	4월 금상첨화
		10월 사각사각 궤·함·농+현대미술			5월 / 로비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직조, 그 재현과 활용전 전통의 씨줄, 현재의 날줄			9월 / 청와대 사랑채 광복 70주년 기념 한복 특별전 한복, 우리가 사랑한			4월 / 로비전 종이로 피워낸 꽃 ‘지화’
	2012년	4월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음 I			6월 / 로비전 이병찬 천연염색전 자연을 물들이다			10월 정옥지 기증전 바틱, 이름없는 예술가의 영혼			9월 / 로비전 김창억 20주기 展
		10월 대한제국, 남성에복 새로운 물결, 주체적 수용			10월 근대직물 100년, 그 무늬들			10월 대한제국, 복식에 깃든 위엄			
					10월 / 로비전 자랑스러운 한국의 딸, 조창수			10월 / 로비전 서헌강 사진전 덕수궁			

	2018년	3월 / 초대전 다선일미		2020년	4월 이영희 기증전 무한한 색감의 변주		2023년	4월 소색비무색, 흰옷에 깃든 빛깔		2026년	3월 노라 노: First & Forever
		5월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음Ⅲ			10월 조선의 군사복식, 구국의 얼을 담다		2024년	4월 모던의 유혹, 황실 종친 맹현가 이야기			8월 / 초대전 포(袍), 재현으로 피어나다 안인실 재현 작품전
		10월 오색·美麗·기품		2021년	4월 이리자 추모 한복전 손끝의 정성, 예술이 되다			9월 기억하고 추억하는			
	2019년	1월 / 로비전 1919 엘리자베스 키스가 사랑한 조선의 표정, 2019 인형으로 되살아나다			10월 격동의 시대, 다시 만난 오얏꽃		2025년	3월 / 국립고궁박물관 궁중 여인의 복식			
		4월 나무 올곧음·깊음·아름다움		2022년	4월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음Ⅳ			4월 재봉틀 연대기, 자봉침			
		9월 / 로비전 백자향아리 華公의 꽃그림자 어리네			10월 의친왕과 황실의 독립운동, 기록과 기억			4월 / 로비전 정민기 초대전 Sowing Sewing			
		10월 이영희 회고전 玄·玆						9월 갓옷, 겨울을 건너다			

유물 기증자 명단 (2022년 4월~2024년 8월)

동문 62명

박용복 29	송미래 46	장경수 51	정형자 58
서진강 36	윤정임 46	구복순 52	권혜옥 59
이해경 36	최정희 47	김용정 52	설영자 59
이인묵 42	노영자 48	변순자 52	박정숙 60
고영자 43	함방자 48	김경애 54	윤난지 60
김혜덕 43	김복혜 49	김옥자 54	이계호 60
이길표 43	박영숙 49	안정남 54	이혜용 60
정명희 43	김경실 50	이미영 54	전경수 60
김종애 44	박경자 50	전경의 54	호원숙 60
김혜경 45	박성희 50	김현옥 55	김미경 61
이남주 45	이춘방 50	이인숙 55	김혜진 61
정민자 45	염정임 51	최인려 57	양승화 61
서정윤 46	임영희 51	유효선 58	양현숙 61

일반 22명

송선희 62	권병훈	이경선
이경희 62	권이나	이 규
이은영 62	김선정	이길주
민승욱 63	김신정	이병찬
박임숙 63	김영숙	이순우
이숙명 63	박상진	이홍주
이은화 63	박정원	정다혜
김정진 64	설갑원	정인옥
이우경 64	손경자	정혜선
박경숙 65	신도자	
	안희자	
	양희선	
	윤광진	

이혜자(32), 김영중(52), 전봉희님은 2022년 4월 이전 기증자로서 전시 기획상 전시와 도록에 포함되었습니다.

